



수은, GGGI와 '그린 EDCF' 지원 확대 맞춘

한국수출입은행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UN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지원하고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재생에너지, 도시교통, 자원 재순환 분야에 녹색투자 사업 기회를 늘리고 투자사업 자문을 강화하는 등 그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오른쪽)과 GGGI 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현대에너지솔루션

'양면발전 태양광 기술' 국가R&D 우수성과 선정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고효율 발전 기술로 경제성을 갖춘 태양광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태양광부문 계열사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양면발전 태양광 기술이 '202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월 개발한 양면발전 태양광 기술은 발전 효율이 기존 단면발전 모듈보다 최대 30%이상 향상된 고효율 발전 기술로, 경제성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매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양성윤 기자



쌍방울, 총무로영화제-감독주간에 마스크 1만장

쌍방울이 제6회 총무로영화제-감독주간에 마스크 1만장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쌍방울은 영화제 현장 스태프와 참관객들의 안전한 위생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트라이 KF94 마스크 1만장과 응원의 메시지를 총무로영화제-감독주간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쌍방울그룹

인사

- ◆삼성서울병원 ◇부원장급 △진료부원장 오세열(신임) △암병원장 이우용(신임) △심장뇌혈관병원장 권현철(유임) △연구부원장 이규성(유임) △기획총괄 김희철(신임) △미래병원추진단장 손영익(신임) △데이터혁신헌추진단장 이봉렬(유임) △간호부원장 홍정희(신임) ◇주요 보직 △교육인재개발실장 송윤미(신임) △QI실장 이준행(신임)
- ◆고창군 ◇5급 승진 △사회복지과 홍태성 △보건소 서치근 △보건소 유병수 △상생경제과 황일선 △건설도시과 이광수
- ◆교육부 ◇주무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행정주사 김지수 △대변인실 사무운영주사 남국양숙 ◇5급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파견 행정사무원 이지영 ◇주무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지원근무 행정주사 공성애 △한국선진학교 사회복지주사보 이주환

부음

▲이영애씨 별세, 박형준(두산 베어스 경영지원팀장)씨 모친상 = 30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11시.



조용규 변호사의 자산상속 제대LAW

단 한번이라도 상속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에게 상속 설계는 돈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오해를 털어내길 바란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시간이 온다. 그때 당신에게 남겨진 의미 있는 물건이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사람들에게 혹은 당신이 추구해온 가치를 위해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상속 설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 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을 마감한다면, 당신의 재산은 임의로 쪼개져 법정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매달 수천만 원을 받고 있는 첫째, 아직 취업준비 중인 둘째, 그리고 아직 미성년인 셋째가 모두 똑같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평소 당신이 아끼던 게임기와 낚은 필름 카메라는 게임과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누군가에게 상속되어 창고에 처박혀 있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가 없다면 당신이 평생 동안 노력해서 쌓은 당신의 재산이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어쩌면 그 재산의 가치를 해하는 방향으로 임의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속 설계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나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시기에 넘겨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당신의 어린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줄지, 당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 누가 당신을 대신해 당신을 위한 결정을 하게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둘 수 있다. 상속 설계는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난 후 남겨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다.

상속 설계의 방법에는 아주 간단한 유언장부터 사후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까지 매우 폭넓은 선택지가 있다. 당신의 자산 상태와 남겨질 이들의 상황에 맞게 어느 것이든 선택하면 된다.

당신에게 남겨질 단 하나의 자산이 당신이 오랜 시간 애지중지하며 사용해 온 조리도구라면, 당신의 세 자녀가 조리도구를 1/3씩 공유하는 것보다 요리사가 되려는 셋째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당신이 원했던 일이 아닐까. 당신과 평생 소원했던 형제가 아니라 당신과 십년 넘게 함께 살아온 파트너가 당신의 집을 상속받는 것이 당신이 원했던 일이 아닐까.

상속 설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제 당신의 상속 설계는 절반 이상 성공한 셈이다. 상속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이 가진 자산과 소중한 물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KT위즈, 삼성 꺾고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

1위 결정전서 1-0으로 승리 1군 데뷔 후 7시즌만에 왕좌

KT위즈가 창단 후 첫 2021 정규시즌 왕좌에 올랐다.

KT는 3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 정규시즌 1위 결정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0으로 이겼다.

시즌 144경기를 나란히 75승9무59패로 마무리한 KT와 삼성은 '진짜 1위' 자리를 놓고 이날 진검승부를 벌인 결과 최후의 승자는 KT다.

2015년 '10번째 구단'으로 1군에 데뷔한 이후 7시즌 만에 오른 왕좌다.

정규시즌 우승이 걸린 이날 경기

는 초반부터 KT 윌리엄 쿠에바스와 삼성 원태인이 초반부터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쿠에바스는 지난 27일 NC 다이노스와 더블헤더 2차전에서 7이닝 108구를 던지고, 3일 만에 마운드에 섰지만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다. 7이닝 동안 1피안타 3볼넷 8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모든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어 나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해 KT의 3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이강철 감독은 부임 2년 만에 팀을 정규시즌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3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타이브레이커(순위결정전)이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경기, KT 선수들이 1대0으로 승리를 확정된 뒤 그라운드로 달려나와 기뻐하고 있다. /뉴스1

LGU+, 업무용車 1391대 '무공해차'로 전환

특수차 300대 제외 모든 차 2030년까지 단계적 진행

LG유플러스는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391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연기관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배기가스 등을 저감해 환경을 보호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함

이다. 이번 전기·수소차 도입 확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사업(K-EV100)'에 동참하면서 추진됐다. K-EV100은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10월 기준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등 2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업무에 활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1700여대 중 특수차량 300여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원 차량과 일반 업무용 차량 총 1391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전기차 충전시설(인프라) 도입 시기를 고려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

정이다. 2025년 30%, 2028년 70% 등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해 2030년 무공해차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매년 무공해차 도입 실적을 공표함으로써, 적극적인 실행을 담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실적을 고려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지원, 회사가 무공해차 도입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채운정 기자 echo@

동반위-한수원, 협력사 ESG경영 지원 나선다

한수원, 상생협력기금 1억 출연 동반위 교육·현장실사 등 제공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사 ESG경영 지원에 나선다.

31일 동반위에 따르면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한수원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 원을 출연하고,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수원은 2018년 12월부터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체결해 3년간 협력사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첫 걸음을 땀 후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 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 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동반위는 또 협력사 ESG 지원 실적을 향후 공공기관 등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반위

반성장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